

“스타트업이 성장 주도하는 ‘제3벤처붐 시대’ 열 것”

이 대통령 ‘청년 창업 상상 콘서트’ 개최
청년주간 맞아 창업가 의견 듣고 소통
40조 원 투자시장 실현 약속 재강조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주간’을 맞아 열린 ‘청년 창업 상상 콘서트’에서 청년들의 도전과 혁신을 격려하고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스타트업과 함께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청년 창업 상상 콘서트를 개최했다.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정부의 청년 정책 주요 인사와 스타트업·대기업·관련 협회 및 단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스타트업의 열정을 뒷받침해 스타트업이 미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제3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뒤 “40조 원 벤처투자 시장을 실현한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실패의 경험이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지 않고 청년들이 이를 도약의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해 청년 스타트업

의 회복과 성장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 패널로 참여해 청년 도전, 딥테크, 글로벌이란 세 가지 세션에 걸쳐 청년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크 콘서트 전에는 스타트업 전시 부스를 찾아가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체험하고, 투자 유치를 목표로 스타트업이 발표를 통해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IR 피칭에 일일 심사역으로 참여하며 청년 스타트업을 격려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토크콘서트는 우리 청년들의 무한한 상상력과 치열한 고민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작

한 청년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를 계기로 ‘새 정부 창업·벤처 비전’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첫 번째 비전으로 정한 ‘모두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루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30년까지 추가·청년 창업가들을 위해 총 11조 원 규모의 혁신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딥테크 중심의 역동적 성장’을 위해 유망 기업에 성장 단계별로 집중 투자하는 13조5000억 원 규모의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의 도전적인 해외 진출을 돕는 ‘스타트업·벤처 캠퍼스’(가칭)도 구축한다.

맹수열 기자

위성락 안보실장 “한반도 비핵화 목표 변함없다”

“北 핵·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이 우선
북·중·러와 관계 지금보다 개선해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라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비핵화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먼저 중단시키고, 줄이고,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밝힌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것. 다만 위 실장은 “로드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는 도식적인 것일 뿐 현실에서 그렇게 유용한 것이 아니다”며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 복원”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최근 북·중·러의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역설했다.

북한이 우리의 움직임에 즉각적인 호응을 보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안보나 역지력이 손상받지 않는 한에서 긴장 완화 조치를 몇 가지 시행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대해서는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실현 가능, 지속 가능해야 하고 국익을 적절한 범위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맹수열 기자

주한미군 전역 장병 취업 팔전은 대한상의·한미동맹재단

한미 협력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美 진출 우리기업과 일자리 연계 지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동맹재단은 1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역 장병 취업 지원 및 한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주한미군 출신 전역 장병의 일자리 연계를 지원해 실질적인 한미 협력·교류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상의는 현재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구인 공고를 등록하고 복무를 마쳤거나 전역을 앞둔 장병들이 직접 지원하는 ‘주한미군 전역 장병 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한미동맹재단은 장병 대상 안내와 참여 독려를 맡고, 대한상의는 플랫폼 운영 및 기업 대상 홍보에 나선 예정이다. 아울러 협약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번 사업이 미국 진출 기업에 실질적인 이점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연방·주정부가 전역 장병을 고용한 기업

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주한미군 출신 장병들은 우수한 일자리를 얻고, 한국 기업들은 한국 문화의 이해도를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에 윈윈인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호영 한미동맹재단 회장은 “이번 협약은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더불어 한국 근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계기로 주한미군 장병들이 한국 근무를 더욱 선호하고, 한미동맹 또한 한층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맹수열 기자



AI 로봇이 그려주는 초상화 17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세계 우표 전시회 필라코리아 2025에서 AI 로봇이 관람객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있다. 연합뉴스

‘일일 카페지기’로 변신한 병무청장



홍소영(왼쪽) 병무청장이 17일 대구 소재 나라사랑가게에서 한 병역이행자에게 음료를 전달하고 있다. 병무청 제공

병무청은 17일 홍소영 청장이 나라사랑가게인 대구시의 한 카페에서 ‘일일 카페지기’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나라사랑가게는 병역이행자에게 상품 가격이나 서비스 이용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홍 청장은 이날 카페에서 직접 주문을 받고, 병역이행 감사 문구가 인쇄된 컵홀더와 함께 음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행사는 병역

‘오늘도 이행’ 병역이행자 감사 캠페인
26일까지 유튜브 등서 국민 참여 가능

이행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의 하나로 이뤄졌다.

병무청은 해당 캠페인을 국민 참여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오는 26일까지 병무청 공식 유튜브와 SNS에서 관련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병무청은 다음 달 1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해령 기자